

터키 메블라나 복식에 관한 연구

- 메블라나 복식 형태 분석과 이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

이희현·이명옥

관동대학교 가정교육과 · SADI 패션디자인과

이슬람 신비주의 교단인 메블라나는 독특한 춤 의식을 통해 종교의 영적체험을 경험 한다. 종교적 춤을 출 때에 착용하는 메블라나 복식은 그 하나하나가 형태적인 면에서 뛰어난 조형성을 가짐을 물론 각각의 형태들은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디자인의 신비감을 더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메블라나 복식의 종교적 배경과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 복식의 디자인에 응용하여 보고자 한다.

1. 메블라나 복식

1) 메블라나(Mevlana)

메블라나는 이슬람의 신비주의(Sufiffism) 종파 중 하나로서 터키 콘야(Konya)에 중심지를 두고 있다. 이슬람 신비주의는 이슬람교의 창시 이후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이슬람교에 저항하여 신비주의적 교의를 내세우며 세속적인 것을 배제 하고 영혼을 오직 영원한 신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이슬람 종파이다. 수피(Sufi)라는 용어는 9세기경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슬람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양털을 수프(Suf) 라고 하는데, 신비 체험을 한 이슬람 수도자가 양털 옷을 걸치고 유랑을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메블라나 교단은 200여개의 수피 종단 중 하나로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던 제랄제딘 루우미(Celaleddin Rumi)가 13세기에 소아시아의 콘야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창시되었다. 이들 교단의 수피들은 종교 의식 때 흰 색의 치마를 입고 1분에 60회전을 하는 춤을 추면서 몰아지경에 빠짐으로서 신과 결합을 이루고자하는 독특한 의식을 치른다. 이 교단의 수피들은 메블레비(Mevlevi) 또는 소용돌이 치는 수도승(The)이라고 불리웠다.

2) 세마(Sema)

메블라나의 종교 행위 중 중요한 의식인 '춤'은 세마라고 하며 이 춤은 격렬한 회전동작을 통해 예배를 절정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윙링 더비쉬(Whirling dervishes)라고도 한다. 세마를 통해 남자 수피들은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마음과 사랑이 완벽하게 되는 신비주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은 세상의 모든 물체는 원 운동을 통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이 추는 회전 춤은 이러한 종교적 사고와 일치하는 최상의 종교 행위라고 믿는다.

세마는 모두 7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들에서 보여 지는 춤과 사용하는 음악들은 창조주인 신과 인간들의 교류를 상징하고 있다.

이 세마 의식은 지금은 하나의 종교 행위를 넘어서 터키 전체의 관습, 역사,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적 유산으로 남게 되었으며, 교단의 창시자 제랄제딘 루우미가 사망한 12월 17일(1273년)을 기념하여 해마다 터키 콘야에서는 12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윙링 더비쉬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열려 메블라나 교단의 의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3) 메블라나 복식 형태의 분석

이슬람 수피즘은 대부분 외모와 옷맵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종교의 첫 단계에 입문한 것으로 간주한다.

메블라나 교단의 세마의식에서 보여지는 복식은 터키 전통 복식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나, 의복을 통해 그들은 육체적 세계에서 벗어나 비밀스런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기에 갈망한다.

또한 춤에 사용되는 각 의복은 종교적 특색을 나타내는 상징성과 아름다운 조형미 그리고 춤사위등과 어우러져 더욱 환상적인 복식미를 보여준다.

① 바지와 셔츠

색상: 흰색 상징: 자신의 수의

남자 수피들은 통이 좁은 흰색 바지와 흰색의 셔츠를 제일 먼저 입는다.

흰색의 바지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회전 춤을 출 때 계속되는 발동작을 하면 살짝 드러난다. 셔츠는 만다린 칼라가 달려 있고 전체적으로 주름을 많이 넣은 풍성한 형태이다.

② 스커트

색상: 흰색 상징: 자신의 수의

바지와 셔츠 위에는 흰색의 긴 치마를 입는다. 이 치마는 점퍼 스커트 형식의 원피스로 총 길이는 어깨에서 바닥길이보다 길다. 이 긴 스커트의 착용방법은 독특하여 본인이 어깨 끈을 위로 올려 잡아 당겨 바닥에 끌릴 정도의 길이가 되면 다른 사람이 검정색 넓은 벨트로 허리를 고정시켜 주는데 이는 춤동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여유분을 많이 두기 위한 것이다. 스커트는 허리 아래로는 넓게 퍼져 춤을 추면 360도로 펼쳐지게 되는 데, 안정적이고 완벽한 원을 만들기 위해 스커트의 단에는 가는 심이 들어있다. 1분에 60번을 회전 하는 빠른 회전동작을 할 때 만들어진 스커트 자락 원 모양은 ‘완벽함’과 ‘합일’이라는 이 종교의 목표와 이상을 나타낸다.

③ 자켓

색상: 흰색 상징: 자신의 수의

스커트 착용이 끝나면 그 위에 허리 길이의 짧은 흰 색 자켓을 입는데 여밈 장치는 따로 없으며 오른쪽 앞 섹에 긴 끈을 달아 허리를 돌려 앞에서 묶게 되어 있다. 따라서 춤동작을 하게 되면 왼쪽 앞 섹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며 원피스의 허리에 묶은 검은 벨트가 움직일 때 마다 자켓 아래로 보여진다.

④ 모자

색상: 갈색 상징: 자신의 무덤의 비석

높이가 높으며 길다란 원추형의 갈색 모자는 카멜의 털을 원료로 한 펠트로 만들어져 있다.

⑤ 맨틀

색상: 검정색 상징: 자신의 무덤

제일 마지막으로 맨틀을 입는다. 이 옷은 처음 등장할 때는 모두 입고 나오지만, 세마의 7개 부분 중 첫 번째 장에서 춤이 시작되면서 춤추는 사람들은 모두 맨틀을 벗게 된다. 맨틀을 벗는 것은 세속적인 의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무덤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2. 메블라나 복식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메블라나 복식은 색상면에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흰색, 검정색, 갈색의 단순한 색조이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머리 위로 높이 올라간 모자, 단순한 자켓의 직선적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서 넓게 퍼지는 스커트의 수직적 형태와 양 팔이 보여주는 수평적 형태는 동양적이면서도 동적이고, 경건한 종교적 느낌을 갖게 한다.

실루엣에 중점을 두면서 색상이나 재질은 다양하게 사용한다면 현대 의상의 디자인으로 응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①스커트

메블라나 스커트의 플레어(flare)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디자인 할 수도 있고, 길이와 여유분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풍성한 개더(gather)나 고어드(gored), 풀(full), 핸커치프(handkerchif) 스커트 등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풍성한 스커트는 동작을 취할 때마다 여러 방향으로 옷감이 움직이고, 스커트의 단은 원형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동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이루어 신체의 아름다움의 효과를 높여 줄 수 있다.

②자켓

자켓은 직선 재단으로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전통 복식에서 보여 지는 실루엣과 비슷하다. 특히 독특한 앞여밈 구조는 전체적인 직선 실루엣과 어울려 자연스러운 자유로움을 보여 줄 수 있다.

③모자

높이를 조절하여 스커트, 자켓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다.